

함께사는 세상 만들기

행복을 바란다면 남의 행복 먼저 챙겨라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

먹고살기 힘들어 환경·인권 뒷전

올유년 새해를 맞는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은 그리 밝지만 않다. 사회 한쪽에선 각종 비만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나지만 다른 한쪽에선 굶어죽는다. 환경과 인권은 먹고 살기 바쁘다며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회갈등의 골은 깊어만 간다.

2004년 12월 대구에서 김어묵개군이 굶어죽었다. 건설노동자인 김군 아버지의 일감이 줄어들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졌지만 생보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행정당국에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다.

2004년 12월 서울시가 파악한 거리 노숙자는 680여명. 지난해 500여명에 비해 180여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전국 보육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연말이면 찾아오던 기업체 등의 기부금이나 정기 후원금 등이 끊겨 어느 때 보다 쓸쓸한 겨울을

노숙자	500여명(2003)→680여명(36% 증가)
지방환경청 적발 환경범죄	561건(2003)→629건(12.1% 증가)
경찰의 인권침해	2805건(전체) 중 1164건(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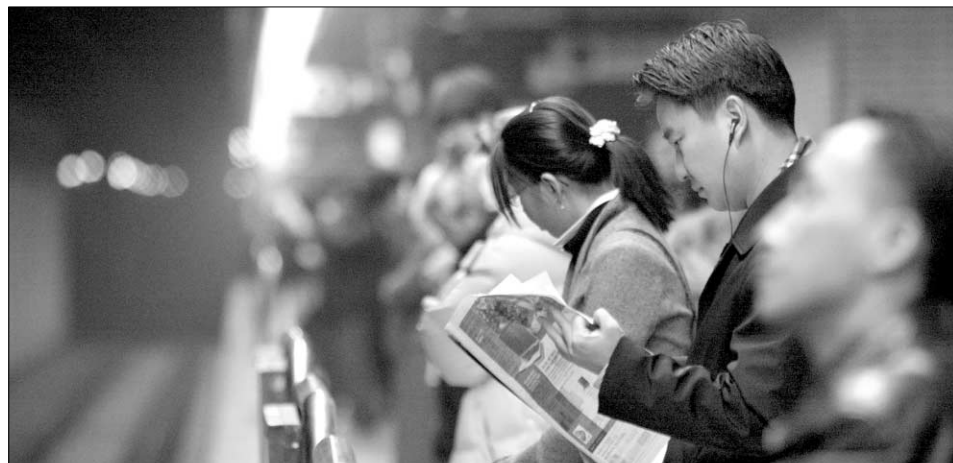
*자료=노숙자(서울시), 환경범죄(환경부), 인권침해(인권위)



사회 한쪽에선 각종 비만 관련 상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나지만 거리의 노숙자는 늘어만 간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보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동안 자치단체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897건의 환경관련 범죄를 적발했다고 지난 12월 밝혔다. 자치단체에서는 268건이 적발돼 지난해(221건)보다 21.3%가 증가했으며 유역환경청의 적발건수는 629건으로 지난해(561건)에 비해 12.1%가 늘었다.

광주 YMCA 청소년 인권센터는 지난 12월 광주지역 청소년 1천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지수'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2.5%가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전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사회 현실은 더욱 척박해지고 있다.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인권, 환경, 복지 등이 경제 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고 발표했다. 같은 달 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센터가 발간한 '2004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관 인권침해의 경우 경찰과 관련한 것이 1164건으로 전체(2805건)의 41.5%를 차지했다.

사단법인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은 지난 9월 "지난해 76개국의 평화관련 지표를 분석한 '세계평화지수 2004'는 71.8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화지수는 △정치분야(민주화, 인권 등) △군사·외교분야(전쟁 및 폭력행위 등) △사회·경제분야(불평등과 빈곤, 삶의 질 등) 3개영역의 지표들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무한의 탐욕 추구, 공동체의식 상실

"온갖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에게도 병이 있다. 만약 온갖 중생이 병을 떠난다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유마경> 이전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사회 현실은 더욱 척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물질은 풍요해졌더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지난 시절에는 가난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의식의 존재하고 있었지만, 자본이 고도화될수록 욕망의 무한추구는 더욱 강고해져 연이연히 세계관이 점차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 이혜숙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 문제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가정해체 등 인간관계에 보다 깊은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악화

될수록 각종 후원이 줄어들어 복지 환경이 척박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상황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해체'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정한 동거나 대상 없이 소위 문자마식으로 살해를 자행해 우리를 혼돈과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유영철 사건', 이와 관련 광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기가 불명확한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그 박탈감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개인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제도 취약 등 사회적 문제도 직·간접적인 범죄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열쇠찾기' 함께 나서자

종교계 '삶의 쉼터' 여야, NGO강화



2003년에 비해 2004년 유역환경청의 환경관련 범죄 적발은 12.1% 늘었다. 사진은 천성산 살리기 집회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러 가지 대안 중 박경준 교수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불교계 NGO들의 활동 및 연대 강화에 방점을 뒀다. 박 교수는 이상사회로 들 수 있는 '불국토 건설'을 위해선 여립 때부터 불교계 가르침을 체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 마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와 더불어 '현재 여기'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불교적 이론 성찰과 함께 불교계 NGO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불교계 NGO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불교적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분야와 관련해 이혜숙 교수는 각종 복지시설 등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에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상담시설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교수는 정부 및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시스템이 지금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 정신적 쉼터가 될 수 있는 종교계에서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 상담활동을 펼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인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불교적 사상인 '연기론'과 '삼세(三世)'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연기론적 세계 속에 있다는 것과 과거-현재-미래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체와 소셜네트웍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인지시킨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 김승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불교적 깨달음의 성찰 및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시점을 욕구 충족의 한계점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신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선 불교계가 개인적 성찰이나 깨달음에서 벗어나 불교적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후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어느 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쭙었다.

"보살은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 보시바라밀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갖추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나이까?"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육바라밀을 성취하고 등정각(等正覺)을 성취할 수 있다. 첫째로 모든 생명을 먹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벽지에서 범부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느니라. 둘째로 자기의 눈이나 재물 등 귀중한 것을 주더라도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셋째로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의 공덕을 위해서 해야 하느니라. 넷째로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모든 중생 가운데 보살이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어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구비해야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시바라밀을 가지고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도 모두 이루어지기를 서원해야 하느니라." <중일아함경>

남동우 기자

2005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	강원시립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승가과	2년	정규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종법 제20호 교육법 제3절 불교대학 제31조(수학의무)에 의거, 불교대학은 승려 및 정사(재가승)의 기본교육과정으로서 본종 승려 및 정사는 누구나 이수해야 한다.

2. 특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본교 졸업생으로 재입학하여 졸업하면 중덕법계품수[*종단 승려인 경우]
- 법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품수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일(월) ~ 2005년 2월 15일(화)

4. 전형일

-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5.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법패과· 불교미술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382-7361-2]
- 각 시·도교구총무원

東邦佛敎大學

서울 성북구 성북 2동 330-586 ☎(02)-745-2030~2

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곤 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서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가. 또 우리 불교계 현실은 어떠한가.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2006년 한국사회 현실을 살펴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함께사는 세상’ 만드는 사람들

나·너·자연 똑같이 존귀하다



김광하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인권 : 김광하 '작은손길' 이사장

외국인 노동자 등 상담·지원에 매진

지난 12월 16일 저녁,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작은손길' 사무실에 다소 검은 피부의 이방인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을 맞은 '작은손길' 김광하(52·여) 이사장과 상근자들의 표정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하기만 하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북적댄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날도 푸라(33·미얀마, 싯미(34·네팔), 틴롱아우(51·미얀마) 씨가 김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 이사장과 이들 3명은 인사가 끝나자 외국인 노동자 모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에 관한 대화를 한참동안 계속했다.

김 이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해온 시간은 그리 짧지 않다. 김 이사장은 1997년 로터리클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한 김해성 목사의 강연을 듣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를 개설해 2001년부터 4년 동안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재해 보상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자원활동을 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편함은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활동에 뛰어난 계기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숙자, 독거노인, 탈북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손길'의 첫 사업으로 작년 12월 23일에는 서울 신설동에 노숙자 쉼터 '사랑방의 집'을 개원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귀하다고 가르치셨다"고 말하는 김 이사장은 "나와 남이 풀이 아니라 불이(不二) 사상의 가르침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이치환 포교사(오른쪽)는 매월 셋째 일요일 연주암에서 환경활동을 벌인다.

환경 : 이치환 포교사

공양간 돌보며 청정국토 실현

12월의 셋째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이치환(61·법문 포교사)은 관악산 연주암 공양간에 있었다. 전날 있었던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단 2004 감사의 밤'을 마치고 새벽 3시에 서울에 도착했지만 아침 일찍 일요일에 참석할 뉘, 수많은 등산객을 맞고 있었다.

낮 12시부터 2시까지 계속되는 연주암의 점심공양시간은 숨 돌릴 틈이 없다. '사찰식 비빔밥'으로 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공양주보장들이 3000명분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포교사는 몇몇 불자들이 함께 1992년 연주암 연불회(緣佛會)를 조직해 매월 셋째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공양간에 나와 설거지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포교사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매월 둘째주에는 포교사단 환경특위 회원 20여명과 함께 서울 인근의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청계산, 삼성산 등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일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범어(法語)를 유인물로 정리해 나눠주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또 넷째주에는 선재동 자연, 안양 동지청소년의 집 등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을 돌본다.

이 포교사는 "현재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포교사는 이어 2005년 계획에 대해서 귀뜸했다. 2005년에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포교사단 환경특별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 포교사들이 전국에서 환경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계사에 준비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 21'을 포교사단 차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처님은 일찍이 연기론을 설하시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가르치셨다"고 지적한 이 포교사는 "남도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이춘성 부관장이 노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복지 : 이춘성 옹호복지관 부관장

"이웃 고통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무료급식 준비에 한창인 옹호복지관 지하 식당에 들어서자 이춘성 부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웃음 섞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봉사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이 부관장은 스스로를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며 웃어보였다.

"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분들의 기분이 좋아야 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로부터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 복지를 하면서 이 부관장은 늘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처음 복지 현장에 왔을 때, 복지 실무 경험이 없는데다 이상만 높아 힘든 점이 많았다"고 털어놓은 이 부관장은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면 어디든 따라갔고, 굶은 일마다 얼굴 팔을 걷었다. 어려울 때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세상 속에서 실현한다는 자긍심으로 힘을 얻었고, 스스로의 신심을 다지기 위한 아침기도를 빼뜨리지 않으며 더욱 고삐를 당겼다.

"부처님께서 만 중생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듯이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진정된 복지를 하고 싶다"는 게 이 부관장의 복지관이다. 물질적 서비스를 넘어 인식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복지사"라고 강조하는 이 부관장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대하며 그들의 존귀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부산 복지단체들의 협의체인 부산불교사회복지관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 부관장은 "타 종교에 비해 늦은 출발이었기에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내부적인 투명성을 지켜내는 경쟁도 해가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사찰 1복지 시대가 왔으면 한다"는 이 부관장에게 복지는 25년 이어온 불교와의 인연을 회향하는 수행의 장이자 복을 일구는 발이다. 이 부관장은 "남은 생 동안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복지현장에서 실현하며 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많은 이들을 제도할 수 있는 출가수행자가 되고 싶다"고 큰 욕심을 내비쳤다. 천미희 기자



평화실천 불교연대 창립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행사.

지역 :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사회문제 해결 시민연대 이끌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5시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의 무등산 입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이 진행된다. 2년 여 간 이어져 오면서 모금으로만 벌써 2700만원(2004년 12월 24일 현재)을 모았다.

이렇게 십시일반(十畝一畝)으로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오고 있는 단체는 바로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광주 선덕사 주지, 이하 불교연대)'다. 불교연대는 2003년 4월 창립된 이후부터 한주도 거르지 않고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고, 3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 조별련에 전달했다.

불교연대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 반대와 철회, 도량농 소송 참여, 대통령 탄핵 규탄,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광주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반대 운동을 비롯한 인권, 평화, 환경, 통일 등 사회영역 전반에서 지역 불자들의 여론을 대변해왔다.

불교연대는 지역의 불교단체뿐만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이웃종교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종교계에서도 불교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연대 이해모 사무국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역 현안에 대처해보니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불교계와 함께 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연대는 2005년에도 지난 2년 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연대는 특히 12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에 공식 시민단체로 등록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 내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물론 불교계 내부 활동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기반이 약한 계층에 대한 포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함께 불교계 내부의 자정운동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법 스님은 이어 "불교역시 지역 현황에 맞게 포교하고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세가 비교적 약한 호남지역의 불교를 일으키고 내실을 다져가는 작업에 보다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철주 기자

한·국·불·교·태·고·종·과·합·계·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2005. 1. 10 ~ 1. 31

◆ 개설학과

학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문헌서화학과 (文書畫學科)	서법예술전공 등방회화전공	00명
불교문예학과 (佛敎文藝學科)	불교음악전공 불교미술전공	
민속문화학과 (民俗文化學科)	역경예술전공 풍수환경전공 민속연희전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지원자격 - 석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연구과정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불교문예	불교음악 실기	사찰기초의식	김구해
		범패실기 (흥소리)	심상현
		불교무용 (나비춤)	김범현
	불교미술 실기	불교조각	이상배
		불화기초실기	원미희
	불교경전 강의	불교한문강독	심재동
		대승경전 연구	주명철
		불교기초교리	심상현
		주역 연구	신성수
		복서목효 연구	김용연
역경명리	역경학 강의	주역 연구	신성수
		복서목효 연구	김용연
	육효학 강의	사주 초급	박영창
		사주 연구	박영창
	명리학 강의	명리학 초급	김동현
		명리학 연구	김동현
	기문둔갑학 강의	기문둔갑 연구	이승진
		육임	홍사
	정성술 강의	정통정성술	이현덕
		생활풍수인테리어	박시익
풍수환경학 강의	풍수지리학	정경연	
	민속연희 실기	민속극·음악·무용	이정섭
민속문화	가요 실기	무속·제·민속	박상만
		가요 연구	임무희
	대체의학 연구	이송득	
자연치유학 강의	한방과 사주학	한승철	
	비전향방문 연구	윤영배	
		실천치유기공	최원섭

*교육생이 적정수에 미달된 과정은 개강을 보류할 수 있음.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 1. 10 ~ 2. 25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2매

◆ 접수방법 - 본 교육원 교육과에 직접 방문
→ 원서 작성 → 해당 등록금과 함께 접수
- 해당 등록금 온라인 입금
→ 본 교육원에 전화로 입금 확인 → 원서는 개강 시 작성

개·교·기·념 공개강좌 특별과정 모집

◆ 모집기간 : 2005. 01. 10 부터 선착순 마감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 특 전 : 총정명의 수료증 수여

◆ 개 강 : 3월 첫주

주택풍수감정사 / 천명시주감정사

◆ 모집정원 : 각 과정별 30명

◆ 수 강 료 : 각 과정 당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재 별도 구입

◆ 교육기간 : 18주

◆ 특 전 : 대학교차격증수여운영규정에 의한 총정명의 자격증 수여

◆ 교 재 : 음양오행사유체계론, 거림천명시주학, 거림기택풍수학

시간	기초 5주 (03.12-04.09)	실전 13주 (04.11-07.09)		
과정	과목명	강의시간	과목명	강의시간
주택풍수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주택풍수학	(토) 14:00-17:00
	천명시주	(토) 14:00-18:00	천명시주학	(금) 18:00-22:00

민화진채 실기

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 서 공 입 교수

◆ 모집정원 : 20명

◆ 수 강 료 : 100만원

◆ 교육기간 : 16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오후 16:00 (6시간)

◆ 접수·교정 과정

중국 현지 침술 연수! 이명희 교수

◆ 모집정원 : 40명

◆ 수 강 료 : 60만원

◆ 교육기간 : 16주(2년 과정)

◆ 특 전 : 년 1회, 중국 현지 침술 연수 30일(연수비 별도)

새로운 동방문화 예술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1